감성·히어로·코미디… 올 여름 활기 더할 3色 애니

가족, 친구, 연인 어느 누구와 봐도 재밌을 초대형 애니메이션이 올 여름 극장가에 몰려온다. 바로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 '인크레더블2', '몬스터 호텔3'이 그 주인공. 세 애니메이션의 잇단 개봉은 하반기 극장가의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

재패니메이션 화제작으로 급부상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

먼저, 오는 7월 19일에 개봉하는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는 영원을 살아가는 마키아와 숲 속에 버려진 아이 아리엘, 우연히 만나 운명이 된 두사람의 단 한번 함께한 시간을 담은 네버엔딩 스토리로, 올 여름 재패니메이션의 흥행 신드롬을 불러 일으킬 화제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카다 마리 감독 특유의 감성이 가득한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는 애니메이션 팬들에게 작화와 작품성을 인정 받은 스튜디오 P.A. WORKS를 필두로 '공각기동대', '데스 노트', '간츠' 등에 참여한 카와이 켄지 음악감독 등 일본 최고 제작진이 함께해 운명과 사랑에 관한 가슴 아련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미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과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 '내 첫사랑을 너에게 바친다'의 신조 타케히코 감독 등 일본 거장들로부터 "눈부신 데뷔작"이라는 호평을 얻은 이 작품은 감수성을 자극하는 작화, 마음을 움직이는 OST 그리고 가슴 따뜻한 메시지를 골고루 갖춰 인생 애니메이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묵직한 테마를 따뜻한 연출로 풀어내 마음을 건드리는 부분이 전세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영화 팬들의 뜨거운 입소문이 더해지며 올 여름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는 오는 7월 19일 개봉한다.

인크레더블2

'픽사 시리즈물' 히어로 가족 귀환

◆'인크레더블2'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어벤져스'팀보다 앞서 세상을 구했던 히어로 가족이 올 여름 귀환한다. '인크레더블2'는 엄마 '헬렌'이 국민 히어로 '일라스티걸'로 활약하고 아빠 '밥'은 삼남매와 고군분투하며 육아 히어로(?)로 거듭난 가운데, 정체불명의 악당이 등장하면서 슈퍼파워 가족이 다시 한번 '인크레더블'한 능력을 발휘하는 이야기다. 이미 지난 6월 15일 북미 개봉과 동시에 압도적인 흥행 성적과 함께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차지해 흥행 애니의 탄생을 예고. 북미 애니메이션 역대 오프닝 스코어 종전 기록이었던 디즈니·픽사의 '도리를 찾아서'(2016)가 기록한 오프닝 스코어 1억 3,506만 달러를 훌쩍 넘는 1억 8,000만 달러(한화 1,978억 2,000만 원)를 기록하며 신기록을 세우면서 거침없는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해외 유수의 매체들로부터 "'다크 나이트' 이후 최고의 슈퍼 히어로 속편"(FORBES), "뛰어난 픽사 시리즈물 탄생!"(USA TODAY) 등의 극찬을 받고 있어 다시 한 번 디즈니·픽사의 전세계 흥행 돌풍을 일으킬 것을 기대, '인크레더블2'를 향한 관객들의 관람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한편 애니메이션의 명가 픽사에서 20번째로 선보이는 '인크레더블2'는 오는 7월 개봉 예정이다.

몬스터 호텔3

강력한 웃음코드·화려한 캐릭터

◆'몬스터 호텔3'

패밀리 관객들의 웃음코드를 저격하며 흥행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몬스터 호텔' 시리즈도 돌아온다. '모스터 호텔3'은 평생 몬스터 호텔에서 몬스터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며 딸과 손자 양육에 바빴던 몬스터 호텔의 주인 '드락'이 가족들이 준비한 첫 번째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펼쳐지는 겁나 신나는 파란만장 바캉스 애니메이션이다. 지난 시리즈를 모두 연출했던 젠디 타타코브스키 감독이 또 한번 메가폰을 잡아 더욱 강력한 웃음과 업그레이드된 캐릭터로 화려한 귀환을 예고한다. 더욱이 영화는 과감하고 시원한 리조트룩 패션의 드라큘라와 소동이 끊이지 않는 몬스터들의 비행을 그리며 심상치 않은 휴가를 예고해 관객들의 관람욕구를 자극한다. 시원한 리조트룩 패션의 드라큘라와 소동이 끊이지 않는 몬스터들의 비행을 그리며 심상치않은 휴가를 예고한 '몬스터 호텔3'는 8월 개봉 예정이다.

/신정원 기자 sjw1991@metroseoul.co.kr

뮤지컬 '이블데드' 스페셜데이 개최

싱어롱 데이·역할 바꾸기 등
7월 5·13·18·27일 특별 공연

B급 유머로 중무장하며 신선한 재미와 시원함으로 올 여름 대학로를 접수하고 있는 뮤지컬 '이블데드'가 오는 7월 5일, 13일, 18일, 27일 총 4회차에 걸쳐 스페셜 데이를 개최한다. 뮤지컬 '이블데드'가 준비한 스페셜 데이는 공연의 독특한 컨셉 만큼이나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무대를 꾸밀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7월 5일에는 새로워진 이블데드의 넘버를 함께 부르는 싱어롱 데이로 공연한다. 싱어롱 데이는 새로워진 이블데드의 뮤지컬 넘버를 관객과 배우가 함께 부르면서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 이어 13일에는 출연 배우들이 본인의 넘버가 아닌 다른 배역의 넘버를 서로 바꾸어 부르는 특별공연과 18일에는 일부 배역의 배우들이 장면에 함께 등장하거나, 역할을 바꾸는 특별공연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27일에는 등장인물 좀비들이 좀비가면을 쓰지 않고 맨 얼굴로 좀비 역할을 소화하는 NO좀비가면데이를 준비하고 있다.

스페셜 데이는 '이블데드'의 B급 유머와 병맛 컨셉을 함께 즐기는 관객들을 위해 본 공연과는 차별화된 컨셉으로 즐길 수 있는 특별 공연이다. 이블데드 공연을 다수 관람한 관객이라면 B급 조미료를 더 첨가한 스페셜 데이가 본 공연의 재미를 더한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

/신정원 기자

'앤트맨과 와스프' IMAX·4D 등 다양하게 즐기세요

3D·스크린X·돌비 애트모스 등
전 포맷 상영… 'N차' 욕구 증폭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하는 '앤트맨과 와스프'가 2D, 3D와 IMAX 2D&3D, 4D, 스크린X, 돌비 애트모스까지 전 포맷 상영을 확정했다. '앤트맨과 와스프'는 '시빌 워' 사건 이후 히어로와 가장의 역할 사이 갈등하는 '앤트맨'과 새로운 파트너 '와스프'의 예측불허 미션과 활약을 담은 액션 블록버스터다. 전작 '앤트맨'에 이어 이번에도 앤트맨은 와스프와 함께 자유자재로 몸의 크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더욱 화려하고 과감해진 사이즈 액션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앤트맨과 와스프'는 2D, 3D 버전과 더불어 IMAX 2D와 3D부터 4D, 스크린X, 돌비 애트모스까지 모든 포맷으로 극장에서 만날 수 있어 영화에서 펼쳐지는 변화무쌍한 사이즈 액션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고자 하는 예비 관객들의 관람 욕구를 자극시킨다. 압도적인 몰입감을 자랑하는 IMAX 2D와 입체감을 더한 IMAX 3D 포맷은 앤트맨과 와스프의 액션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시각적 즐거움을 줄 것. 자유자재로 사이즈를 바꾸는 앤트맨과 와스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생동감있게 체험할 수 있는 4D와, 3면 스크린을 통해 커지고 작아지는 앤트맨과 와스프의 사이즈 액션을 직접 체감해볼 수 있는 스크린X 포맷은 '앤트맨과 와스프'를 더욱 실감나게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으로 영화 속 액션의 현장감을 극대화시키는 돌비 애트모스 포맷까지 상영 확정되어 영화 팬들의 N차 관람(다회차 관람) 욕구를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앤트맨과 와스프'는 마블 10주년을 빛나게 할 히든카드이자 앞으로의 새로운 10주년으로 무한 확장시킬 열쇠를 쥔 작품으로 세계 영화 팬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전편에 이어 페이튼 리드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았다. 전 포맷 상영 확정으로 남다른 사이즈를 자랑하는 '앤트맨과 와스프'는 7월 4일 전 세계 최초 개봉한다.

/신정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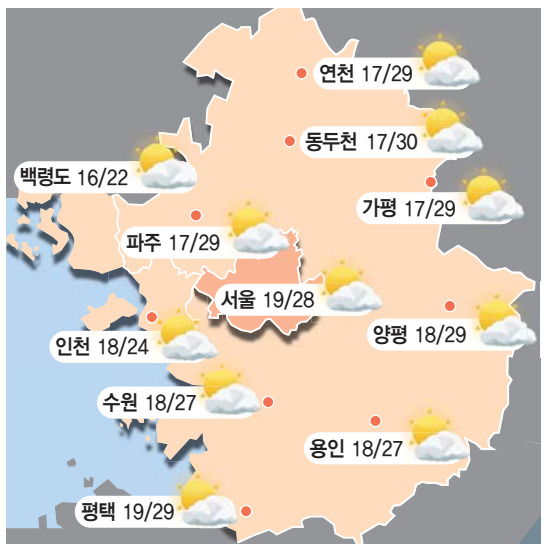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11 | 해짐 / 19:56

6월
20일
음력 : 5월 7일

수도권 날씨
28~1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벼랑 끝 신태용號… 멕시코전서 손흥민·황희찬 투톱 나서나

신태용 호가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스웨덴에 무릎을 꿇었다

신 감독은 지난 18일 스웨덴과의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잘츠부르크)을 공격수로 내세워 키가 큰 김신욱을 전면에 배치해 역습 찬스를 만드는 공격진을 형성했다. 하지만 장신 군단 스웨덴에 막혀 제대로 된 공격은 없었고 유효슈팅 0개(전체 슈팅 5개)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0-1 스웨덴에 패했다.

스웨덴과의 경기가 허무하게 끝나면서 신 감독은 멕시코와의 2차전이 더 부담스러워졌다.

18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경기장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대한민국 대 스웨덴의 경기. 신태용 감독이 작전 지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엇보다도 멕시코의 전력이 생각보다 강했다. 활발한 공격을 보여주지 못한 '치차리토' 하비에르 에르난데스가 주춤한 가운데 2선 공격이 독일의 수비를 뚫어냄으로써 한국 수비에 비상이 걸렸다.

'가상의 멕시코' 온두라스와의 평가전에서 손흥민과 황희찬이 최전방에 나서면서 2-0 승리를 거둔 만큼 이 투톱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는 24일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벼랑 끝에 몰린 신태용 감독이 강호 멕시코를 상대로 16강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규춘 기자 ch9720@